

서점가에 태평양 파도 높게인다

동북아시아 주도권 강조한 미래예측서 독자들 관심끌어

“지중해는 과거의 바다, 대서양은 현재의 바다, 태평양은 미래의 바다.”

미 국무장관 존 헤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정치 경제적인 주도권 변화를 위와 같이 표현한 바 있다. 존 헤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학자들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의 표하고 있다. 1966년 일본의 경제학자 고미자 기요시가 태평양지역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제의한 것도 태평양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서점에서도 태평양의 높은 파도를 만날 수 있다. 이제 세계는 태평양의 푸른 물결에 젖어 들게 될 것이며, 태평양의 높은 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는 책들이 미래예측서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중 서점에 있는 미래예측서를 보면, 그 이론서로는 「대변혁」(J.D. 데이비드슨 외, 동아출판사) 「실체성의 시대」(갈브레이드, 창립) 「새로운 현실」(P.F. 드러커, 시사영어사) 「미래 쇼크」(엘빈 토플러, 한국경제신문사) 「2000년대의 신세계 질서」(서규환, 디자인하우스) 「제3의 기술혁명」(다니엘 벨, 한국통신 출판부) 등이 있다. 이들 책에서는 냉전 질서의 붕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몰락, 경이적 기술혁신, 블록경제권의 대두, 환경파괴와 그에 대한 관심의 고조, 그리고 유전자공학의 발달 등으로 변화되는 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미래세계의 주도권은 동남아에

반면에 이러한 이론들에서 파생된 세계의 정치 경제적인 변화나 주도권의 판도를 예시한 책으로는 「21세기의 준비」 「강대국의 흥망」(폴 케네디, 한국경제신문사) 「메가트렌드 2000」(존 나이스비트 외, 한국경제신문사) 「일어서는 나라 주저앉는 나라」(프랭크 기브니, 동아일보사) 등이 있다.

이 책들의 대부분은 정치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의 발전된 미래, 특히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발전된 미래를 점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관점은 미래사회가 정치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더 활발한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미래예측서들과도 같은 궤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서구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더 많은 발전을 보일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최근 정치, 경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미래예측서들 중에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 연안의 발전을 낙관적으로 조망한 책들이 다수 끼어 있다. 미래의 바다로 예견되는 태평양권의 발전은 일본을 비롯한 ‘네 마리 용’의 역할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한편 한반도의 통일이 국제정치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견도 있어 관심을 끈다.

지금도 세계를 앞질러 가고 있는 일본, 그리고 ‘네 마리 용’으로 불려지는 우리나라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성장이 단연 돋보일 것이라 한다.

한편 필자들의 대부분이 미국의 학자라는 점은, 책이 기술된 목적이 미국이 향후 2000년대에 국제적인 대응점을 찾는 노력으로 비쳐진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기는 하다. 때문에 태평양연안 아시아국가에서 행해져야 할 미국의 역할을 항상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력을 앞세운 힘의 균형이 유지돼야 하며 동남아의 성장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미국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필자의 한계가 곧바로 책의 단점으로 부상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눈에 비친 태평양 연안국, 특히 동남아시아의 현실을 볼 수 있다는 시각 자체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준비」는 현재 50억의 인구가 21세기 중반에는 1백억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하에 세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증가된 인구가 자원의 하나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신혁명, 금융혁명, 생물공학혁명, 로봇 및 자동화의 확산 등 신산업혁명의 여파로 21세기는 지금과는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무국경세계로의 이행, 다국적기업의 부상, 민족국가의 퇴조와 함께 블록화 경향과 국경을 초월하는 경제활동이 확산되는 미래세계는 태평양의 서편에 있는 국가들에서 더 크게 발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일본과 인도, 중국 등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태평양 연안의 변화에 대한 21세기 예측서들이 베스트셀러로 부상하고 있다.

서도 상당히 낙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미래의 발전국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 예측하는데 그 원인을 높은 교육수준과 국민저축수준에서 찾고 있다.

미국의 역할 강조하는 시각 견지

「강대국의 흥망」과 「일어서는 나라 주저앉는 나라」도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부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역사적인 조명을 통해 동양과 미국 그리고 서구 유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을 앞지르는 일본의 여러면을 조명하면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 등이 일본을 모범으로 삼아 무서운 경제성장을 보였다는 과거의 수치를 근거로 향후에도 이러한 낙관적 발전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제목에서 비쳐지듯이, 그러나 이 책 역시 서구유럽의 발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일어서는 나라=동남아시아’ ‘주저앉는 나라=서구유럽’이라는 관계식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다.

「메가트렌드 2000」은 1990년대에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을 우선 살펴본다. 예를들면 세계 경제의 호진, 예술의 번영, 자유시장사회주의의 출현, 복지국가의 쇠퇴, 환태평양 지역의 부상, 종교의 부흥, 여권신장, 개인주의의 대두 등이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환태평양지역의 부상을 다른 부분을 보면, 미래경제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을 불안스럽게 하는 존재로, 중국이 일본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른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를 저자는 중국의 개방화에 따른 동남아시아 경제의 재편에서 찾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태평양에 연한 주가 태평양시대의 무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도 특이하다. 즉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 국가들은 산업의 발달로 미국상품과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인접한 미국의 서해안 지역이 발전하리라는 주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태평양시대 예측서가 총론에 속한다면 우리나라의 필자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한 책들은 각론에 속할 것이다. 「21세기 신국제질서와 한반도」(김철범 외, 평민사) 「2020년의 한국과 세계」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21세기위원회, 동아일보사) 「미리보는 코리아 2000」(최평길, 장원) 「신국제질서와 한반도의 통일」(임용순, 성대출판부) 「21세기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한승조 외, 형설) 등이 그러한 책이다. 이 책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와 경제관계를 살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데 많은 지면을 남북통일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학자들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력이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들이 과연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는, 지금 상태로는 아무도 모른다. 미래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그 예측의 어려움은 더하다. 하지만 태평양의 파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면서 미래인 듯하다.

—이성수 기자